

“사울의 우울증”

사무엘상 16:14-23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의 70-80% 정도가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에게도 이런 우울증 증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이런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증세를 말씀으로 치료받으려 하지 않고, 음악으로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를 잘하는 음악사를 고용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우울증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윗이 정치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삼상 16:14)

사울의 우울증은 여호와와 영이 떠남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그 자리에 여호와가 부리는 악령이 들어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와 영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즉, 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침체 빠진 것을 두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면서 얼마든지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침체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중 가장 흔한 경우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양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양식을 먹지 못하면 기운이 없는 것처럼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을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게 되며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감추기만 한다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하지 못하면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함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정직을 잃어버리는 순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늘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게다가 사무엘로부터 자신의 폐위 소식을 들었으니 그 불안감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자신의 불안감을 치료받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서 상담을 받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음악적인 치료를 선택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삼상 16:15-16)

물론 음악치료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어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다 하더라” (삼상 16:17-18)

우리는 보통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때에 본격적으로 정계에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다윗은 악사로서 사울의 왕궁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렸고 또 악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우울증으로 인해 그가 본격적으로 정계에 데뷔하게 되는 기회를 맞이 하게 된 것입니다. 시골에 소리 소문 없이

문혀 있었을 다윗이 사울의 우울증을 통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상황을 어떤 기회로 삼아주실지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 누군가가 그 사람의 천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하고 자포자기해서 로렘나무 아래에 드러누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렘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왕상 19:5)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졌다는 것입니다. 탈진하고 지쳐 쓰러져 죽고 싶다고 말하는 그에게 천사가 다가와 그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며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 그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고 어루만져 줄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또 때로는 아내가 그 천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셀목자가 천사가 되어 그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에는 따끔하게 꾸짖거나 훈계해 줄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까지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품어줄 수 있는 '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우울한 마음과 탈진, 상실감, 외로움,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이며, 사랑을 받을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성숙하다면,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꾸짖고 훈계하는 '선생'이 아닌, 아무 말없이 안아주고 토닥여 주는 '천사'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 공동체가, 또 우리 목장이, 또 우리 가족이 여러분에게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결국 우리가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가 지니고 있던 탈진과 죽고자 했던 그 마음이 치료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힘들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상실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에서, 영적침체가 찾아오는 몇가지 경우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 개인적으로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그 상황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도 이야기해 봅시다.
2. 혹시 내가 영적 침체를 경험했을 때, 또는 극한 낙심과 절망속에 빠져 있을 때, 나에게 '천사'와 같은 역할로 다가와 주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역할로 다가와 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